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1.319>

JCCT 2024-1-37

## 대중이 기대하는 학교의 역할 - 팬데믹 시기의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

### The assumptions that people expect from schools

허신혜\*

Shin-hye, Heo\*

**요약** 이 연구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대중 담론의 주요 성격을 밝히고, 이것의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의 역할에 대한 담론이 급증하였던 팬데믹 시기의 주요 일간지 사설을 검토하여 대중 담론의 주요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중들은 학교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었다. 첫째, 학교는 균등한 학습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질적으로 균등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는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다. 학교의 역할이 비단 교육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대중 담론에서 제기하는 학교의 역할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말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은 채, 이 모든 역할이 교사 개개인의 열정과 희생에 기대게 만드는 구조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학교의 역할, 대중 담론, 학교에 대한 가정, 대중의 기대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on the role of schools and to explore its implications. To this end, major daily newspaper articles during the pandemic, in which discourse on the role of schools increased rapidly, were reviewed. As a result, people made the following assumptions about the role of schools. First, schools are institutions that must provide equal learning. Second, schools are institutions that must provide caring education. These findings have led to renewed essential questions about the role of schools. It is also necessary to further subdivide and discuss the role of the school raised in the discours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ed that all of these roles have the potential to bring about a structure that makes each teacher lean on passion and sacrifice without distinction between the role of the school and the role of the teacher.

**Key words** : Assumptions about the role schools, Discourse, Newspaper, Education and Caring

\*정회원,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접수일: 2023년 10월 1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1월 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Received: October 15, 2023, Revised: November 6, 2023

Accepted: November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angelashh@hnu.kr  
Dept. of History Education, Hannam Univ,

## I. 서론

팬데믹의 대혼란은 지났지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보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였던가를 성찰하는 것은 의미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은 더 자주, 더 오래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비단 도래할지도 모를 팬데믹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경험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은 어린 학습자들을 키워내는 교육 분야에서는 백년 대계를 위한 필수요건이자 가장 큰 책무이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교육, 의료, 먹거리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영국에서는 ‘핵심 인력(key worker)’으로 불렀고, 미국에서는 ‘필수 직원(essential employee)’으로 불렀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덜 중요한 것도 없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더 많이 생산되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되는 방식으로 사회가 운영되었다. 하지만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려면 더 필요한 일들이 있고,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1].

한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었고,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학교의 역할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대중들은 학교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였을까? 이것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일간지의 사설에서 학교의 역할에 대해 가정하였던 것을 검토하고, 이러한 대중 담론이 시사하는 바를 얻고자 하였다.

‘역할’의 의미가 ‘맡은 일’ 혹은 ‘맡겨진 책무’를 뜻한다면, 이 책무는 사회적 혹은 상황적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일’이므로 관계 설정의 변화에 따라 맡겨진 일도 달라질 수 있다. 학교와 사회의 관계 변화, 그리고 학습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맡겨진 책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의 기대에 따라 학교에 맡겨진 역할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일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역할 기대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이에 필요한 방향 설정을 위해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II.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분석 대상 기간은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첫 학기, 즉 2020년 1학기, 3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가 세계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모든 학교에서 전면적인 대면 수업이 실시되었던 2021년 2학기, 즉 2022년 2월 28일 까지로 총 4개 학기에 해당 하는 기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는 전례 없이 전 세계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등교 중단 사태와 맞닥뜨리면서, 그동안 당연시하던 학교의 역할을 되짚어보게 되었고, 나아가 학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빅카인즈의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빅카인즈는 뉴스 통합 DB로, 54개 언론사의 뉴스를 분석이 가능한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어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어는 본 연구의 주제에 해당하는 ‘학교’ 이외에 ‘교사’를 추가하였다. 학교가 하드웨어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학교에 소속된 교사는 소프트웨어적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학교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학교와 교사는 따로 떼어서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색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첫째, 전국 주요 일간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분석 대상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이었다(가나다 순). 둘째, 연구 주제의 특성상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한하기 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한 논점과 주장이 명백히 드러나기 자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사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의 역할에 대한 대중 담론의 논점을 보다 선명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2. 연구 방법

대중 담론의 추이와 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적·질적 방법이 모두 필요하였다. 먼저 관련 키워드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담론의 추이를 양적으로 확인하는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빅카인즈에서 제공한 양적 데이터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로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분류 기준, 즉 통합 분류 (1)과 (2)로 분류된 모든 사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개별 기사의 내용

을 읽어가면서 핵심 논지를 검토하고 선별하는 과정이었다.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빅카인즈에서 제공한 통합 분류 (1)과 통합 분류 (2)에 제시된 키워드까지 확대 검토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즉 통합 분류 (1)과 (2)에 학교나 교사가 키워드로 등장하는 모든 사실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학교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실을 선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기사는 선별하여 제외시켰다. 예를 들면, ‘탈레반의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룬 사실(한겨레, 2021. 09. 06일자)은 통합 분류에서 학교와 교육의 영역으로 분류되었기에 당초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내용 분석을 통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사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선별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46건의 사실이 선별되었는데, 경향 11건, 동아 15건, 조선 5건, 중앙 5건, 한겨레 10건이었다.

두 번째 단계로, 성분분석법을 활용하여 개별 기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중 담론의 성격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성분분석법은 문화적 범주와 연관된 속성, 즉 의미의 구성 요소를 찾는 것이다. 이 구성 요소는 분석의 단위라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범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대조하여 대조의 차원에서 범주화한다. 따라서 성분분석법을 통해 학교의 역할에 대한 의미의 단위를 찾아내고, 이들의 의미 단위를 기준으로 대중의 기대와 가정을 범주화하였다.

### 3. 연구 과제

이 연구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대중 담론을 검토하여 대중의 기대에 나타난 특징을 밝히고, 이것이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바를 찾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사실의 추이를 확인하여 학교의 역할에 대한 대중 담론의 양적 변화를 확인한다.

둘째, 사실의 내용을 검토하여 학교 역할에 대한 담론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징을 밝힌다.

## III. 연구 결과 및 분석

### 1. 학교 역할 담론의 추이

팬데믹 시기 학교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언론에 나타난 빈도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실의 숫자 자체가 대중의 관심의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언론 매체의 속성이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대중의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에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의 추이를 살피는 것은 의미 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의 정도와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의 관심의 정도를 그 추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관심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다. 키워드 트렌드 분석은 학교와 교사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사실을 추출하여 그것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분석법이다. 트렌드 분석은 빅카인즈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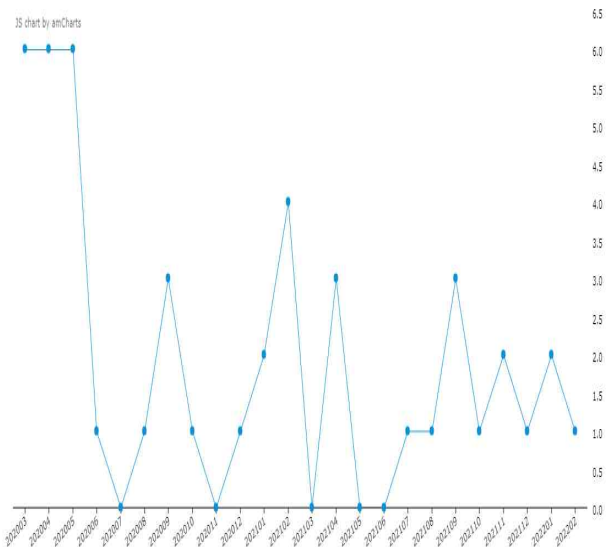


그림 1. 학교에 대한 담론의 추이  
 Figure 1. Trends in Discourse on Schools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자료는 2020년 3월 28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4개의 학기에 대한 키워드 트렌드 분석의 결과이다. 분석 단위는 월별이며, 해당 기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에서 2020년 3월, 4월, 5월에 언론의 집중 보도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팬데믹 초기에 봄학기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초기에 급증했던 학교 담론은 양적으로는 잠시 주춤

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담론이 어떠한 내용으로 지속되었는지를 내용 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학교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가정

### 1) 균등한 학습을 제공해야 하는 곳

학교는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균등한 학습을 보장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담론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학교의 역할에 대한 담론에서, 이 주장은 초기에는 컴퓨터 보유율 등 학습 매체의 보유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의 문제와 관련지어 나타났다[2][3][4][5][6]. 비대면 학습이 실시되면서, 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온라인 수업 도중에 서버가 다운되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혹은 학교는 장비를 갖추었으나 학생 개개인의 디지털 기기들이 미처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들이 초기 단계에서 문제점으로 빈번히 등장하였다[7]. 이후 학교는 학습 환경, 즉 학습을 위한 시스템 보완과 더불어 기기 확충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완하면서 물리적 환경에 따른 학습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비대면 학습 초기에 자주 지적되었던 학습 장비나 시스템의 불안정 문제, 그리고 디지털 기기의 부족 문제는 새로이 인프라를 구축·보완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학생들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학습 도구의 불평등에서 기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가지적으로도 차츰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 시기에 빈번히 제기되었던 학습 도구나 기술의 문제는 교육 격차, 즉 학생 간 혹은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크게 벌이는 데 일조한다는 담론으로 연결되었다. 교육 격차의 문제는 수업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문제와도 관련지어 등장하였다. 교사의 능력과 열정에 따라 교육 격차가 벌어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가 준비한 수업의 내용에 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것은 교육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수업의 질을 끌어올려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

이었다. 이것은 디지털 기기 부족의 문제에서 보았던 것처럼, 교육 격차의 문제와 연결되었다.

이는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학교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였다. 즉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을 제공해야 한다는 가정, 즉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대중의 기대를 나타낸다.

### 2)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곳

학교에 대한 담론은 새로운 형태로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학교 차원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들 개개인은 기기를 완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습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학습 결손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즉 수업 자료의 부족이나 기기 결함의 문제에서 기기 활용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기기를 학교에서 대여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활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외된 계층, 즉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그리고 장애 학생은 사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의 질이 고르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교의 돌봄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돌봄은 '돌보다'의 명사형으로, 사전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일을 의미하는데, 학교에서 이러한 보살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 돌봄시스템 마련 등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교육 소외 계층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온라인이라는 형식만 고집하지 말고, 학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들에게 학습 결손은 물론 정서적 결핍이 생겨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학년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혼자 기기를 다루는 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돌봄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원격교육의 장기화에 따라 학생도 학부모도 피로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학습 관리의 부실로 이어졌다. 원격교육의 다양한 실험이라는 혁신 속에서도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돌보는 것이 학교 교육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돌봄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나타났다.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팬데

믹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와 50만 교직원이 방역을 떠맡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실, 복도, 급식실 등 학교 내 모든 장소에서 감염의 위험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교 시 발열 체크는 물론 책상과 사물함 소독 등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학교의 역할이 비단 교육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가정이 밑바탕에 있다. 또한 특정 대상에게는 학습의 관리라는 다른 차원의 돌봄을 학교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비대면 학습 초기에 집중적으로 불거졌던 학습 시스템의 불완전 문제, 완비되지 못했던 개별 학생들의 학습 기기의 문제, 즉 하드웨어의 결합 문제를 거론했던 담론은 궁극적으로는 교육 불평등과 교육격차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면서 논의되었다. 이후 학교가 시스템을 보완하고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대여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학습 도구의 불평등에서 기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 격차를 우려하는 담론은 학교 수업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 그리고 교사들의 수업의 질의 문제와도 지속적으로 관련지어 등장하였다. 즉 학교는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서 지역 간, 그리고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능력과 열정에 따라 교육 격차가 벌어질 염려가 있음을 나타냈다.

초기에 빈번히 제기되었던 학습 도구나 디지털 기기 혹은 디지털 기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업의 내용과 질에 대한 문제제기는 교육 격차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담론들은 학교가 하드웨어적인 문제에서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에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담론들에서 반복되었던 것처럼, 교육격차를 줄여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회적 계층의 고착화를 방지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학교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교육의 역할, 즉 공교육 기관으로써 학교가 맡아야 하는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라는 가정은 학교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수업 자료나 디지털 기기들이 완비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교육 격차를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저학년이나 소외된 계층 등 특정한 대상은 별도의 돌봄 시스템을 통해 정서적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 또한 학교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습자의 학습 관리는 물론 신체적·정서적 포함하는 돌봄의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들은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 교육 기관으로서의 전통적인 학교의 기능은 물론 돌봄의 기능을 포함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그러하였듯이, 역할 기대는 언제나 변화를 거듭하면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다만 이러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된 역할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칫 이 모든 역할은 교사 개인의 희생과 열정의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목소리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교사들은 온·오프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하루 두 번씩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불필요한 학생들의 이동을 확인하여 금지시키고, 화장실 이용 인원을 확인하여 제한하고,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학습 부진 상태를 계속 살피는 일 등을 모두 해야 한다. 이 상태로 라면 교사들이 과로로 먼저 쓰러지게 될 것이다.”[8]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교의 역할이 변화하고 다양화되어 간다면, 그에 따른 역할들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이러한 역할을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References

- [1] Jae Cheon Choi, Jang Ha-joon, Choi Jae-bung, Hong Ki-bin, Kim Nuri and Kim Kyung-il, Corona Sapiens, Influential, pp. 58-61, 2020
- [2] Eunsoon Cho, "Untact Classes in Post Covid-19: The Roles and Challenges of Educational Technolog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36, No. 3, pp. 693-713, 2020. DOI: <http://dx.doi.org/10.17232/KSET.36.3.693>
- [3] Hyeji Kil, Anna Shin, "Exploring the Contents of Digital Competency Education-Focusing on Keyword Network Analysis on Educational Programs and Expert Opinion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JKE)*, Vol. 48, No. 2, pp. 47-73, 2021. DOI: <http://10.22804/jke.2021.48.2.003>
- [4] JinAa Bae, Ara Ko, Jungwon Cho, "Direction of Education for Developing Digital Competency: Analyzing of Digital Competency Enhancement Education Projects",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 25, No. 1, pp. 241-244, 2021.
- [5] Shin Soo-bum, "Strategies for Digital Teaching Practicum to Strengthen the Competency of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Practice Research*, Vol. 3, No. 1, pp. 1-9, 2021. DOI: <https://doi.org/10.35733/tpr.2021.3.1.1>
- [6] Heyoung Kim, "The Futur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English Education in the Post-COVID-19 Era", *English Teaching*, Vol. 76, Supplement 1, Autumn, pp. 87-105, 2021, DOI: <https://doi.org/10.15858/engtea.76s1.202109.87>
- [7] Shinhye Heo, "Discourse of Korean Newspaper Articles about Digital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1, pp. 799-805, 2023.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3.9.1.799>
- [8] The Kyunghyang Shinmun, 19th May, 2020. Available from <https://www.bigkinds.or.kr>.